

# 과거의 시점에서 본 미래의 책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전자매체의 발달로 전통적인 '종이책'의 퇴조가 점쳐지면서 이른바 '미래의 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종이책의 미래에 대한 그 논의들은, 한편으로 낙관적인가 하면 또 한편으로 비관적이기도 하다. 미래의 책에서도 종이책이 여전히 주류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과 함께, 종이책을 완전히 대체할 非종이책의 앞도적 우세를 예상하는 견해 또한 없지 않다. 그런 점에서 미래의 책의 온전한 모습을 예측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식산업의 발전속도를 반영하는 컴퓨터의 발전속도가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책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다양해지고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50여년전만 해도 사정은 달랐던 듯하다. 에릭 그롤리에가 그의 「도서의 역사」(한국어판 제목: 도서출판의 역사, 민병덕 역, 을유문고, 1984)에서 전망하고 있는 "제20세기 중반에서의" 미래의 책의 모습은 대단히 소박하다. 여기에 그 롤리에가 50여년전의 시점에서 전망한 미래의 책의 일단을 발췌 소개한다.

온갖 정조로 살펴보건대, 20세기 중반의 이 전환기에 책은 새로운 훼손을 계속 받고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 훼손이 마침내 어떠한 결과에 다다를 것인가는 우리에게 아직 알 수 없다.

간행본의 생산기술은 경신되어 가고 있다. 한편, 납(鉛)을 기초로 한 금속에 의한 전통적인 식자 대신에 필름에다 하는 사진식자가 행하여지게 되었다. 이 영역에 있어서의 연구는 일찍이 191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공업화는 미국에서—다만 프랑스인 이고네의

방법을 써서—거우 실현된 참이다. 다른 한편, 종이를 사용해서 하는 원색사진 복제의 센세이셔널한 진보는 조만간에 책의 영역에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구텐베르크 이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형태의 '도서'는 동시에 온갖 방면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같이 보인다.

원고나 그림의 원거리 송신은 대단히 진보되어 있다. 그 실제적 응용은 이제까지는 한정되어 있지만(특히 미국의 신문 「연합」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가까운 장래에는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여기서는 다만 미국의 「울트라팩스」를 들어 두는 데 그친다.

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시트, 마이크로카드도 인쇄술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다. 아주 작은 모양의 기록사진은 1839년부터 1853년 사이에 영국에서 존 벤자민 덴서에 의하여 시도되고, 이어 파리 攻圍 중에 다글롱에 의해 대규모로 실용화되었다. 1906년 오텔레트와 고을드 슈미트는 '축소사진적'인 책의 간행을 제안하였었다. 이것이 마이크로필름의 출발점이다. 마이크로필름에서의 문헌이—활판인쇄, 타이프라이터, 사진 등등에 의한 문헌이 많던 적건 축소되어 필름에 복사된다. 마이크로필름은 특히 고문서나 신문문헌의 복제를 위해서 대단한 보급을 이룩하였다. 마이크로시트는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둘들 만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9×12 내지 10.5×14.8 센티미터 크기의 투명한 '종이장'에 복사되는 것이다. 마이크로카드도 역시 종이 위에 축소된, 사진에 의한 복제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카드에 의한 책이나 '마이크로프린트'가 생겨났다. 마이크로프린트란 오프셋판으로 인쇄

한 축소복제이다. 그러나 더욱 혁명적인 하나의 방법이 이미 지평선 위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텔레비전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사진을 (문헌 사진도 포함해서), 이미 필름 위에가 아니라 線에다가 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모두 이러한 방법은 눈으로 읽거나 조작없이 보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원본을 재생하는 閱讀機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마이크로필름이나 마이크로시트를 위한,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카드나 축소인쇄물을 위한 이러한 기계가 오늘날에는 일반에게 판매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모두 다 아는 바와 같이, 소리(音)를 직접 기록하는 방법은 磁氣 녹음기의 발명에 의해서 10년 이래 대단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연설이나 집회의 토론을 미리 필기할 필요도 없이 레코드, 선(와이어, 테이프) 등에 넣어 보존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기서도 또 책은 어느 정도 위협을 받고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위협은 그다지 중대하지는 않다. 사려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말을 듣기보다도 텍스트를 읽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

어쨌든 오늘날 저다지 번영하고 있는 장르인 앞지르기 소설, 저 과학 소설의 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언하고 있다—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형태의 '책'은, 기원 2000년에는 좀더 실용적인 형태의 지식 전달 도구에 의해서 대체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요컨대, 그것은 책에 대한 또 하나의 훼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책은 4만년 내지 5만년에 걸친 기나긴 역사상에서 이미 다른 많은 훼손을 받아 왔던 것이다.

# 출판저널

통권 제155호 / 1994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증한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공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금: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시 739-8791

문명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다!

# 뉴 에이지 혁명

Aquarian Conspiracy

원제: 물병자리 시대의 공모  
 매릴린 퍼거슨  
 김용주 옮김/값 9,800원

## 세기말의 엄청난 대변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새로운 시대(New Age)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세기와는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엄청난 탈바꿈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온 세계, 전 분야에서 소리없이,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도도한 의식 혁명의 물결—모든 낡은 바탕을 허물고 전혀 다른 토대 위에 이룩될 영적 각성의 시대를 예고한다!

### 새로운 세계의 열림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인간관을 읽는다

1. 생명의 농업 후꾸오가 마사노부/값 6,500원

2. 마음의 의학 칼 사이몬트 외 지음/값 6,500원

3. 녹색정치 스프레트낙·키프라 공저/값 7,000원

4. 직관의 경영 다미 멘탈비즈니스 연구소/값 3,500원

5. 세계의 공동체 마을들 올리버 포피노 외 지음/값 6,000원

## 영적 각성의 시대를 예고하는 탁월한 기념비적 대저작!

다가오는 시대는 영적 각성의 시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킨 탁월한 기념비적 대저작! 정치·경제·학문·종교·예술·교육... 20세기말 인류 문명 전반에 걸쳐 몰아닥친 영적 각성 운동의 거대한 흐름을 한눈에 조망한다! 뉴 에이지 운동은 과연 보수 기독교인의 말대로 사탄의 선택인가, 선구자들의 말대로 인류를 암흑에서 건져낼 정신개벽인가?